

◆ 10년 7월 고3 43~46번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좋은가’가 고민이라면 역사학자 토머스 플러는 “오늘의 달걀보다 내일의 닭이 더 좋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작가인 사무엘 존슨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적게 소비하라.”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어떻게 대답할까?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돈을 ㉠기반으로 한 소비와 그 소비를 통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궁극적 만족이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고민은 ‘얼마나 소비할까’라는 걱정과 다르지 않다. 만약 평생 벌 수 있는 수입을 알 수 있다면, 죽는 순간에는 번 돈을 다 쓰고 남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다 쓰지 못할 재산을 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의 ‘토머스 플러’와 ‘사무엘 존슨’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리적 소비가 된다. 즉 ‘현재와 미래에 얼마만큼 소비해야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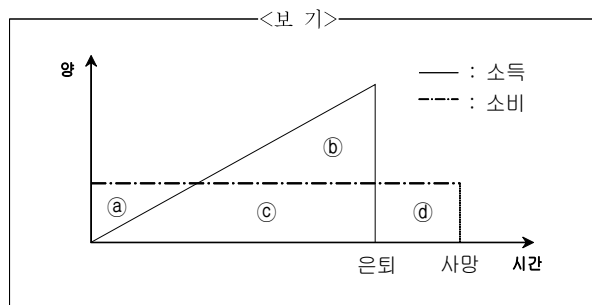
그래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결정하려면 개인이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직장을 얻기 전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면 평균 근무 기간 및 연봉을 알 수 있고 매년 오르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소득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최적 소비량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에 ㉔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평생 소득은 주어져 있는데 현재 많이 소비하면 미래에는 조금밖에 소비할 수 없다. 만약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할 양의 일부를 남겨 둔다면, 그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라는 추가 수입을 가져다준다. 미래에는 원금에 이자의 증가분만큼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소비를 줄이는 데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보다 현재 눈앞의 사건에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건네면서 “오늘 줄까, 내일 줄까?”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대부분은 ‘오늘 달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고통도 먼저 경험하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를 미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시간선호’라고 부른다. 따라서 ㉕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미래를 위해 이자 수입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소비의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자 수입과 시간선호의 효과가 ㉔상쇄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주는 각각의 만족만 생각해 최적 소비량을 결정하면 된다. 결국 평생을 ㉕고려한 합리적 소비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래 모두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평생 동안 소비를 고르게 나눠서 하는 것이 젊은 시절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란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소비할 만큼의 소득이 없는 시절에는 ㉔만큼 빌려 살아갈 수 밖에 없다.
- ② ㉔가 많아지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의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③ ㉔와 ㉔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으로 이자 수익을 포함한다.
- ④ ㉔, ㉔, ㉔의 합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쓰게 될 전체 소비량에 해당한다.
- 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㉔가 ㉔와 ㉔를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

44. ㉕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사장은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 직원의 건강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 ② 최 이장은 제작년에 좋은 가격을 받은 고추를 올해 더 많이 심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 ③ 정 과장은 5년 후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요량으로 월급을 쪼개어 주택 마련 적금을 붓고 있다.
- ④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박 부장은 신문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투자할 기업을 늘 살펴본다.
- ⑤ 이 과장은 결혼 10년을 맞이하여 모아둔 동전을 무료 급식소에 기탁하고 하루 동안 급식 봉사 활동을 하였다.

4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비판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 재해나 질병 등을 대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 ② 미래소비의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소비를 줄이라는 것은 현재 소비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거야.
- ③ 소비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심하게 변할 때도 많은데, 매일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 ④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 평생에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야.
- ⑤ 이자율이 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의 이자 수익이 시간 선호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46. ㉑~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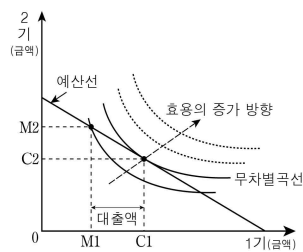
- ① ㉑: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㉒: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 ③ ㉓: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④ ㉔: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짐.
- ⑤ ㉕: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함.

◆ 19년 3월 고2 21~25번

[21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와 2기의 두 기간만 생존하며,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_1 과 M_2 를 얻는다.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며,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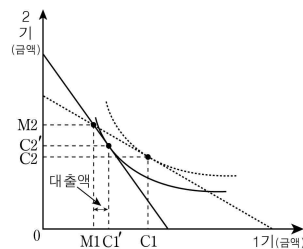


된다. 예를 들어, K가 1기에 r 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r) \times 100$ 만 원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이자율이 r 인 경우 예산선은 기울기가 $-(1+r)$ 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의 예산선은 저축할 때, 오른쪽의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그림 1〉의 무차별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곡선보다 우측 위의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데, 이는 매 시기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곡선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곡선이 우측 위에 나타나므로, (M1, M2)에 비해 (C1, C2)가 효용이 더 높은 소비 계획이다. 이는 (C1, C2)의 매 시기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 더 ④ 균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즉 (C1, C2)를 ©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C1, C2)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으며,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므로 더 효용이 높지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K는 (C1 - M1)을 대출하여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한다.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자율의 기울기는 $-(1+r)$ 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1기와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이자를 상승으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 이자가 늘어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K는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K는 1기 소비 지출액을 줄인다.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상충되므로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림 2>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2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벌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과 두 시기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효용: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통해 얻는 만족을 수치로 나타낸 것.

* 초기 부존점: 저축이나 대출 등 금융 행위가 불가능할 때의 소비 계획.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비자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신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 ② 2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선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 ③ 2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소비 계획이 결정된다.
- ④ 2기간 소비 모형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⑤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이자율, 현재 소득, 미래 예상 소득을 모두 고려한다.

22. ‘그림 1’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㉔)과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계획’(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계획이다.
- ② ㉠은 <그림 1>의 초기 부존점에 비해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한 소비 계획이다.
- ③ ㉠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은, ㉠을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곡선들보다 우측 위에 존재한다.
- ④ ㉠에 비해 ㉡의 2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 ⑤ ㉠과 ㉡에서의 K의 대출액의 차이는 ㉠과 ㉡에서의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이자율이 r 인 경우 현 시기(1기)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2기)의 $(1+r) \times 100$ 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를 역으로 보면 다음 시기의 $(1+r) \times 100$ 만 원은 현 시기 100만 원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24.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갑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발표로 인해 갑국의 모든 소비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2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

- ㉠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 보조금 지급은 대체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효과만 일으킬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 모든 소비자가 내년에 지급받을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올해 모두 소비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 소비자의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 ㉤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내년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25. 문맥상 ㉠ ~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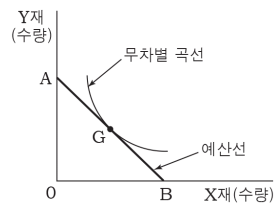
- ㉠ ㉠: 갚기도
- ㉡ ㉡: 좋아한다
- ㉢ ㉢: 이른
- ㉣ ㉣: 고르기
- ㉤ ㉤: 없앤

◆ 14년 4월 고3 A형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 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림>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①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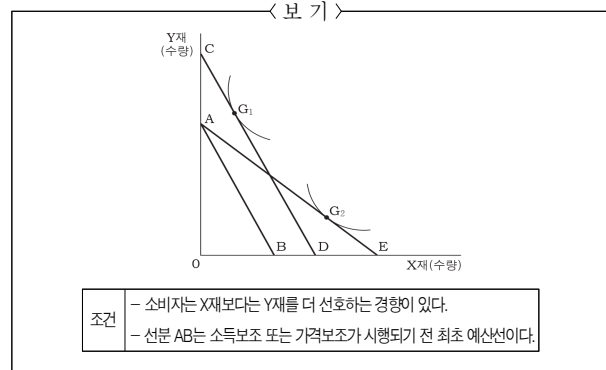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16.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18.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①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㉔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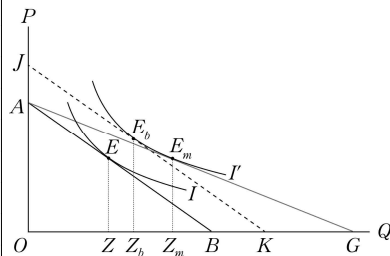
㉑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 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㉒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㉓ 기대하는 것이다.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 결정자들의 전략으로 ㉔ 채택될 수 있다.

(나)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나 있다.



<그림>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_b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㉕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_m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㉖ 숙고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 ③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 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 ②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③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 ④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띠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6. (가)의 ㉠, ㉡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중앙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 ② ㉠: 중앙 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③ ㉡: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 중앙 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7.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B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 ②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책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 ③ 공공재의 소비는 정책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₀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_m만큼 늘어난다.
- ④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
- ⑤ 점 E₀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_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₀에서 Z_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8.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 해당 지방 정부에 10억 원의 정책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가정한다.)

- ① <보기>의 사례는 지방 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책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군.
- ② <보기>의 사례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정책 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③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9. ㉠ ~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서관의 장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② ㉡: 우리는 날씨가 맑기를 기대했다.
- ③ ㉢: 채택된 원고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④ ㉣: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품을 재출시했다.
- ⑤ ㉢: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속고했다.

◆ 12 경찰대 1차 15~18번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에 2달러 하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 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또한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서 모텔에서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했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

주민들은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신문은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머릿기사를 실었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도 같은 생각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로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소송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숙박업소는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격폭리처벌법을 법무장관이 집행하려고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중세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는, 근대 이후에 세상이 시장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의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가격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준보다 현저히 높을 때” 가격 폭리라는 혐의가 생기지만, 어쩌다 익숙해진 가격 수준이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가격은 허리케인의 습격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다른 가격보다도 더 특별한 가격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얼음, 발전기, 모텔의 방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8월에 플로리다가 정전되었을 때 얼음주머니 가격이 10달러라면 제조업자들은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서 나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면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 폭리에 관한 논쟁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서, 시장이 건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가격 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 지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만 하는가?

15.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 | |
|----------|---|--------|
| 〈찬성〉 | : | 〈반대〉 |
| ① 자유의 존중 | : | 다수의 행복 |
| ② 다수의 행복 | : | 미덕의 추구 |
| ③ 자유의 존중 | : | 미덕의 추구 |
| ④ 미덕의 추구 | : | 자유 존중 |
| ⑤ 자유의 존중 | : | 미덕의 행복 |

16. <보기>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지닌 사람을 위 글에서 찾으면?

<보기>

장사꾼을 악마로 만들어 비난한다고 해서 재해 지역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 | | |
|-----------------|----------------|
| ① 경제학자들 | ② 구매자와 판매자 |
| ③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 ④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 |
| ⑤ 소송을 건 플로리다 주민 | |

17. ㉠의 문맥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 |
|----------------|---------------|
| ① 썩어도 준치 | ② 울며 겨자 먹기 |
| ③ 뚝배기보다 장맛 | ④ 도랑 치고 가재 잡기 |
| 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

18. ㉡의 질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①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이다. |
| ②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이다. |
| ③ 재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말이다. |
| ④ 어떻게 하면 시장이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할 수 있을지를 묻는 말이다. |
| 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들을 공정 가격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말이다. |

- 정답: 15.④ 16.① 17.② 18.③

◆ 08년 10월 고3 17~19번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격 결정을 자유 시장 기구에 맡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때로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수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가격 통제라고 한다. 조세 부과가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는 간접적인 규제라면, 가격 통제는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으면서 정부가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규제이다. 이런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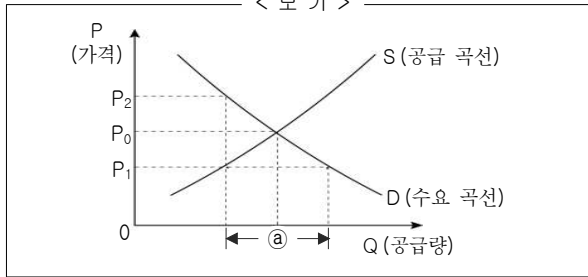
상품 부족으로 물가가 치솟을 때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이 제도를 최고 가격제라 하고 이때 정한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 한다. 최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설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생겨 소비자들은 상품을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없다. 최고 가격과 균형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암시장¹⁾이 형성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한편 최고 가격제와는 반대로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최저 가격제라 한다. 최저 가격제를 설정하는 취지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최저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최고 가격제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배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착순 방식과 배급제이다. 선착순 방식은 먼저 오는 소비자에게 순서대로 상품이 떨어질 때까지 판매하는 방식이고, 배급제는 각 소비자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고 그 배급표만큼 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있어서는 선착순 방식과 배급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묶여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생산자들이 그 상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 가격제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쓸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의 예로는 정부가 상품에 대한 비축 기금을 이용하여 초과 공급량을 전부 사들이거나, 정부가 빈곤층에게 초과 공급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의 예로는 상품 생산자에게 상품 생산량을 줄이도록 권장하면서 가동하지 않은 설비에서 생산될 상품의 가치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 균형 가격 :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선에서 성립하는 가격. 이 균형 가격하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 한다.

1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_0 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의미한다.
- ② P_1 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면 a만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할 것이다.
- ③ P_0 이하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려는 이유는 P_0 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 ④ P_2 는 P_1 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 ⑤ P_1 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P_1 과 P_0 의 차이를 크게 하면 a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최저 임금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경영이 악화된 일부 기업이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미숙련 근로자의 취업률이 크게 줄었다.

- ① 최저 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더욱 노력하겠군.
- ②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최저 가격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최저 임금제는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근로자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는 미숙련 근로자들과 주로 관련이 있는 제도겠군.
- ④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량은 증가하겠군.
- ⑤ 최저 임금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군.

19.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고 그 표만큼 상품을 살 수 있게 한다.

- ② 특정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후 국민들이 그 상품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 ③ 특정 상품의 생산자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권장하면서 생산자에게 그 손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 ④ 특정 상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그 상품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한다.
- ⑤ 특정 상품에 대한 비축 기금을 마련하여 그 상품을 모두 사들인 후 빈곤층에게 상품권을 주어서 구입하게 한다.

◆ 10 사관학교 1차 33~36번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은 크게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쟁시장은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비경쟁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는 다시 과점시장과 독점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가, 과점시장에서는 몇몇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독과점은 시장 질서의 왜곡, 소비자들의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병폐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독과점금지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견제한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인허가 정책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써서 독과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 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조선, 자동차 등의 대형 기업 부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적정가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때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러한 최고가격제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수요자인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공평성을 추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10만원 아래로 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살 수 있어 공평성이 증가된다. 최고가격제는 전시(戰時)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활용된다. 비상시에 가격이 급등한 쌀을 정부에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하면 소비자들은 쌀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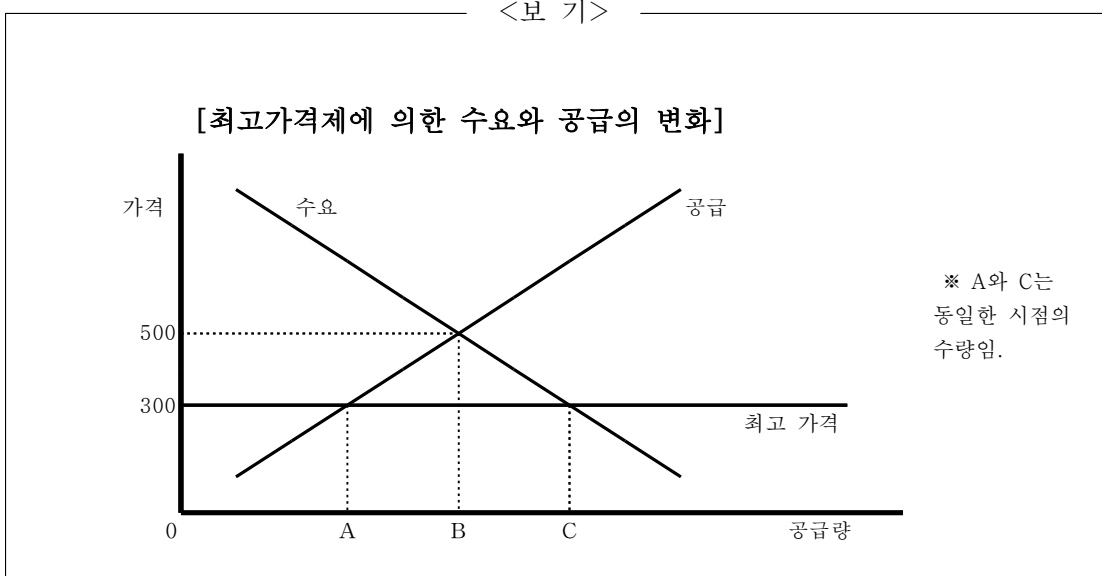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독과점을 형성하여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익이 감소하여 공급을 줄이는 반면,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다. 정부의 보충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한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재화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암시장이 생겨 정부가 제한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맡겼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쌀농사가 풍년이라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자. 쌀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농부들은 생산 비용도 건질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는 농부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쌀을 거래할 수 없도록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부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최저가격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많은 쌀이 생산된다. 이때 정부는 그 잉여량을 구입했다가, 흉년 때 방출하여 쌀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고가격제는 공평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 ②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교정하는 기준은 균형 가격이다.
- ③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들끼리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④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⑤ 가격 정책에 의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정적 효과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3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최고가격제에 의해 가격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량이다.
- ② B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다.
- ③ C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다.
- ④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B에서 A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이 감소된다.
- ⑤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정부는 C에서 B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35. 글쓴이가 <보기>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위 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시민들의 일상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 사태는 공공재였던 전기 공급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민간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전기 요금이 더 싸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들은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합하여 발전 시설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 ①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② 비경쟁시장이 경쟁시장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 ③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공공재가 자유 경쟁에 맡겨졌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독과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36.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3점)

- ① 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 ② 장애인에게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 ③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준다.
- ④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 ⑤ 서민용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를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